

협회원 정예화, 참여회원에 혜택돌아가도록 협회사업 활성화

오리업의 경쟁력강화와 협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회사업이 활성화된다. 또 협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원 정예화와 함께 참여한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계획안이 마련되어 시행된다.

본회는 지난 6월4일과 7월19일 제 2.3차 이사회를 열어 이와관련된 사업안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육과의 차별화 유통을 위한 협회마크를 부착한 오리고기 포장유통사업 추진 ▲협회지정 모범요식업소 지정한 국내산 오리고기의 소비촉진 사업전개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요리책 및 포스타 제작에 의한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 개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생산재의 공동구매사업 전개 등이다.

또 협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지도 사업전개에 의한 협회원의 생산성 향상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협회지 발간시 정예화된 회원에 정보지 발송 ▲협회원 회지 광고시 광고요금의 할인혜택부여 ▲각종 민원 및 관련자료 요청시 회원에 한해 혜택부여하는 방안등

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8월말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협회 참여치 않는 회원 정예화 단행

본회는 지난 2.3차 이사회를 열어 협회에 가입하고 활동치 않는 회원 및 자격을 상실한 회원들에 대한 협회원 정예화를 추진했다.

또 향후 협회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시행키로 했다.

지난 6월개최된 2차이사회는 지난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22명의 회원에 대한 회원제명안이 상정되어 이중 21명이 회원에서 제명됐다.

또 지난 7월개최된 제3차 이사회는 충남,영남지회에서 통보한 명단을 토대로 충남지회 14명,영남지회 15명등 29명에 대한 회원제명(안)이 상정되어 이의없이 전원 제명됐다.

이번에 제명된 회원은 각지회에서 협회참여를 독려하고 중앙회의 제명취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된 회원들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중앙회에 정예화된 회원명단을 통보하지 않은 중부지회, 중부북부지회,충청지회, 강원지회,

광주전남도지회등은 오는 10일까지 중앙회에 명단을 통보키로 하고 8월중이 지회에 대한 회원정예화 작업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질병에 의한 피해분쟁시 협회가 적극 나서 해결키로

최근 오리사육농가에서 초생추때 새끼오리가 다량 폐사되어 경제적 손실이 큰 것과 관련해서 본회는 회원농가의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했다.

지난 제3차 이사회는 전염성 간염 발병에 의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안)을 심의하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피해가 심각한 농장에 대한 백신 사용에 의한 피해최소화 방안 추진, ▲장기대책으로 질병최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마련, ▲새끼오리 다량 폐사에 의한 부화장과 농가간의 분쟁발생시 협회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회의 이같은 결정은 올해들어 오리사육농장에서 초생추때 새끼오리 폐사가 심각하여 농장들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또 사육농가와 부화장간의 분쟁발생시 협회가 나서서 분쟁을 해결키로 한 것은 질병문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 등에 의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키 위한

것이다.

질병문제로 농장생산성이 악화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현실적인 대안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중국내 가금질병 발생설과 관련된 대정부 건의

본회는 지난 5월 홍콩과 대만등지 외신에서 중국내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정보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중국산 가금육 수입 중단등 6개항으로 짜여진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본회는 정부는 중국산가금육 수입재개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자국의 힘과 이익을 앞세워 무역보복적 외교정책을 자행하는 중국정부의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중국정부는 질병상황에 대해 은폐 조작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을 중지하고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규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자국의 질병상황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 정부당국은 중국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할 것과 질병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중국,홍콩 등 현지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진실규명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수입을 재개한 중국산 가금육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본회의 성명서 발표는 지난 5월 대만방역당국이 중국내에서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이 발생하여 대량의 닭이 폐사하였으며 대만방역당국은 중국의 농장방문 및 출입을 자제해 줄것과 가금육 밀반입 역시 자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홍콩의 외신 보도에 의해 취해졌다.

오리고기 통계자료 회신 농림부

본회는 지난 6월 2일 오리고기 생산 소비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농림부에 회신했다.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이자료에서 본회는 국내 오리고기 소비량은 99년말 현재 3만3천4백25톤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연간 도축수수는 2천3백60만수로 전년대비 144% 증가하여, 국민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0.74kg에 달한다고 회신했다.

또 국내오리고기 생산량은 99년말 현재 정육기준으로 3만1천4백16톤에 달하며 오리고기 수입량은 2천9톤으로 수입단가는 2.9불선, 국내 지난해 산지육용오리 가격은 4천4백원으로 전년동

기 대비 22% 하락했다고 회신했다.

산지오리가격 회신 가평 이태욱회원

본회는 지난 6월27일 경기도 가평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김종모 회원이 요청한 올해 산지오리가격 동향에 대한 자료를 회신했다.

회신에서 본회는 지난 4월의 산지오리가격은 중부권이 42일령기준 4천2백원, 영호남권이 44일령기준 4천2백원, 새끼오리 가격은 평균 7백원선에 거래되었다고 회신했다.

또 5월의 산지오리가격은 중부권이 40일령기준 4천5백원, 영호남권이 42일령기준 4천2백원선이었으며 새끼오리 가격은 중부권 8백원선, 영호남권 7백원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 회원의 이같은 자료요청은 지난 5월경 한업자의 횡포에 의해 사육중이던 오리가 대량 폐사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위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99년도 오리수당소득 회신

본회는 지난 5월19일 양주축협에서 요청한 지난해 오리사육농가의 수당소득에 대한 자료를 회신했다.

이 회신에서 지난해 오리수당소득은 생산비 3천6백40원에 평균 판매가격은 4천4백원으로 총소득은 7백60원에 달했다고 회신했다.